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THE PREMIUM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로, 국어에서 한 음절에는 하나의 모음이 반드시 필요하며 모음의 앞이나 뒤에 각각 최대 한 개의 자음이 올 수 있다. 즉 국어에서는 ‘모음’, ‘자음+모음’, ‘모음+자음’, ‘자음+모음+자음’의 음절 유형이 있다. 가령 ‘값’은 ‘자음+모음+자음’의 유형에, ‘앞’은 ‘모음+자음’의 유형에 속한다. 이와 같이 현대 국어에서는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때문에 표기 형태를 통해 단어의 음절 수와 음절 경계를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그런데 국어의 표기 형태가 실제 발음상의 음절 및 음절 유형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가령 ‘집+이’는 [지비]로 발음되지만 원형을 밝혀 ‘집이’로 표기하므로 표기 형태가 음절 및 음절 유형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표기 형태와 음절의 일치 여부는 음운 변동에 따라라도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쓰+어’는 ‘-’가 탈락해 [써]로 발음되는데, 모음 탈락은 규칙적인 현상이므로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여 표기 형태가 음절과 일치하게 된다. 이와 달리 ‘안+고’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나 [안꼬]로 발음되는데, 이는 규칙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아 표기 형태가 음절과 달라지게 된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는 소리대로 표기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현대 국어에 비해 표기 형태와 음절이 일치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대표적으로 체언이나 용언 어간의 끝소리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의 초성으로 옮겨 적었던 이어적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국어의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소리만 올 수 있어 종성을 8개 중 하나로 표기한 것 역시 표기 형태와 음절을 일치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가령 종성 ‘ㄱ’은 ‘ㄱ’으로, ‘ㅌ’은 ‘ㄷ’으로, ‘ㄲ’은 ‘ㄱ’으로, ‘ㅊ, ㅌ’은 ‘ㅈ’으로 발음에 따라 표기되었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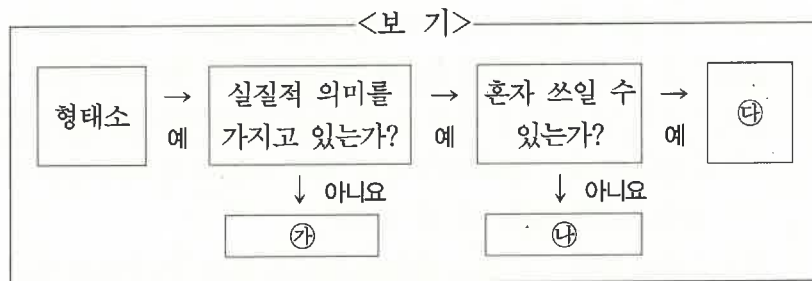
- ① ‘음악회’는 축약이 일어나 [으마회]로 발음되며, 첫 번째 음절의 유형이 ‘옷장’의 첫 번째 음절 유형과 일치한다.
- ② ‘젊은이’는 탈락이 일어나 [절므니]로 발음되며, 첫 번째 음절의 유형이 ‘옷안’의 두 번째 음절 유형과 일치한다.
- ③ ‘바깥쪽’은 교체가 일어나 [바깸쪽]으로 발음되며, 두 번째 음절의 유형이 ‘닭장’의 두 번째 음절 유형과 일치한다.
- ④ ‘숨이불’은 첨가가 일어나 [숨니불]로 발음되며, 두 번째 음절의 유형이 ‘옷이’의 두 번째 음절 유형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⑤ ‘여단이’는 교체가 일어나 [여다지]로 발음되며, 세 번째 음절의 유형이 ‘닭이’의 두 번째 음절 유형과 일치하지 않는다.

36. 다음은 중세 국어의 표기를 나타낸 것이다. 윗글의 ㉠, ㉡에 따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比丘란 노피 안치고 [비구는 높이 얹히고]
- 보미 밋스매 잇고 [봄이 마음에 있고]
- 성실하기를 힘써 하고 [성실하기를 힘써 하고]
- 蘭草와 淸의 달음은 엇데오 [난초와 쑥의 다름은 어째서인가]
- 누네 도흔 빗 보고져 [눈에 좋은 빗 보고자]

- ① ‘노피’는 어근의 형태를 밝혀 표기하지 않았으므로 ㉠에 따른 것이다.
- ② ‘보미’는 체언과 조사를 분리해서 표기하지 않았으므로 ㉠에 따른 것이다.
- ③ ‘힘써’는 어간에 나타난 음운 변동을 반영하여 표기하였으므로 ㉡에 따른 것이다.
- ④ ‘淸의’는 체언의 원형을 밝혀서 표기하였으므로 ㉡에 따른 것이다.
- ⑤ ‘빗’은 단어의 종성을 실제 발음과 다르게 표기하였으므로 ㉡에 따른 것이다.

37. ㉠~㉣의 형태소를 분석하여 <보기>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아무리 화가 나도 세 ㉠ 번까지는 참는 것이 좋다.
- 나는 검은 연기가 하늘로 ㉡ 치솟는 광경을 보았다.
- 우리는 훈련을 마치고 ㉢ 돌아온 형을 환영해 주었다.
- 그녀는 그와의 ㉣ 말싸움에서 오갔던 말들을 떠올렸다.

- ① ㉠과 ㉡는 ㉡에 해당하는 형태소가 각각 2개씩이다.
- ② ㉠과 ㉢는 ㉣에 해당하는 형태소가 각각 1개씩이다.
- ③ ㉠과 ㉣는 ㉣에 해당하는 형태소가 각각 1개씩이다.
- ④ ㉡와 ㉣는 ㉣에 해당하는 형태소가 각각 1개씩이다.
- ⑤ ㉢와 ㉣는 ㉡에 해당하는 형태소가 각각 2개씩이다.